

# 타이랜드의 대외관계와 경제협력정책

황 두 현\*

<目次>	
I. 일반개황	IV. 직접투자현황
II. 상품무역현황	1. 직접투자추이
1. 개황	2. 직접투자의 구성
2. 품목별 수출입	V. 경제협력정책
3. 지역별 수출입	1. 무역정책
4. 주요 수출품의 국별구조	2.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제도
5. 주요 수입품의 국별구조	VI.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III. 서비스 무역현황	1.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1. 수취	2. 경제협력증진 가능성
2. 지급	3. 한국의 대타이 통상확대
3. 서비스별 무역외 수지	방안

## I. 일반개황

아세안(ASEAN) 經濟開發의 선두주자인 타이랜드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매년 7~8%의 높은 實質成長을 이룩하였다. 80년대 들어서도 매년 평균 5% 成長을 시현하여 아세안의 다른 國家들을 앞지르고 있으며 나아가 신홍콩업국으로 불리우는 한국·대만·홍콩을 바짝 뒤따르고 있다.

먼저 타이랜드의 經濟全般에 관한 일반개황을 살펴 보자. 1970년대에는 200불대에 머물렀던 일인당 GDP는 1987년에는 890달러로 크게 增加하였다. 따라서 世界銀行의 國家分類에서는 저위중간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곧 상위 중간 소득국(upper-middle income countries)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產業構造의 변화추이를 GDP 구성비로서 살펴보면 1970년대 초기에는 농림어업 30%, 광공업 20%, 서비스부문이 50%를 차지하는 농업위주의 생산

\* 홍익대, 경제학

구조에다 서비스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열대지역의 지개발국의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5개년개발계획의 꾸준한 추진으로 광공업부문이 확대되어 1989년에는 동부문이 GDP 중 27%를 차지하는 반면 농림어업부문은 16%로 크게 떨어져 산업구조가高度化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이 60%로 늘어나 농업부문에서의 축소가 서비스부문으로 이행되는 취약한 產業構造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외거래측면을 보면 수출의존도는 1972년의 1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7년에는 24%에 다다르고 있으며 수입의존도 또한 1972년의 19%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7년에는 25%에 다다르고 있다. 輸出·輸入을 포함한 무역의존도는 1987년 현재 49% 수준으로 新興工業國인 한국·대만 등과 비교할 때 아주 낮은 수준이다. 무역수지는 1970년 초에는 5억불 미만의 적자를 보였고 그후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1980년 초에는 13억불까지 증가하였으나 최근 다소 호전되어 1987년에는 4억불의 적자를 시현하였다.

한편 물가면을 보면 제1차 및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해 1970년초 및 1980년 초기에는 소비자물가가 20%까지 오르는 시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 이후 연 2% 정도의 낮은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보이고 있다(이상 표 1 참조).

이같이 볼 때 타이랜드의 經濟構造는 아직도 농업부문 및 서비스부문 위주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부문도 가공식품 및 섬유 등 경공업

〈표 1〉 주요경제지표

		1972	1978	1985	1987
경상 GDP 1인당 GDP	백만달러 달러	7,913 205	21,843 482	38,344 747	47,137 890
산업구조(GDP 기준)					
농림어업	%	30	27	17	16
광공업	%	19	23	23	2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	51	50	60	57
수출의존도	%	14	19	18	25
수입의존도	%	19	24	22	25
무역수지	백만달러	-403	-1,269	-1,332	-386
소비자물가상승율	%	5.1	8.0	2.4	2.5

위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풍부한 자연자원 및 농업기반을 가지고 있고 저 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수출지향산업, 노동집약산업 그리고 地方開發事業 등에 外國人 投資를 유치하는 적극적인 工業化 및 開發計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先進國 및 NICs 간의 產業構造의 재편과정에 있는 현재의 세계 무역환경에 비추어 볼 때, 타이랜드의 부상가능성은 매우 커 곧 아시아의 다섯번째 신흥공업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주목되고 있다.

## II. 상품무역현황

### 1. 개 홀

타이랜드는 1987년의 總輸出은 3천 14억 바트(약 117억 달러)에 다다르고 있으며 輸入은 3천 333억 바트(약 129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1987년도에는 약 12억 불의 貿易赤字를 시현하였다.

수출추이를 보면 1970년대에는 매년 평균 23.5%의 높은 신장세를 보여 輸出產業이 활발하였으나 80년대에 와서는 다소 수그러들어 연평균 14.2%의 신장에 그치었다. 그러나 70년 이래 연평균 19.4%의 높은 수출신장을 보였다. 최근 들어 수출신장세가 급등하였는데 1986년에는 전년비 19.6% 신장하였고 1987년에는 30.4%라는 매우 높은 증가률을 보여 수출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입추이를 보면 1970년 이후 매년 16%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출신장을을 다소 밀도는 수준이다. 기간별로 보면 70년대는 매년 20%의 수입증가가 있었으나 80년대에는 그 증가세가 12% 정도로 누그러졌다. 특히 70년대 후반과 80년 전반의 기간에는 수입이 매년 30%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을 크게 확대시켰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는 수출규모에 맞추어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輸出과 輸入을 종합한 무역수지 규모 추이를 보면 70년도에는 10억 불 미만에 불과하던 무역수지적자가 그후 수입증가에 따라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20억 불에 이르다가 최근에 다시 10억 불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수출 및 수입단가지수의 추이를 보면 수입

단가가 수출단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단가는 지난 20여년 동안 매년 9%의 상승을 보였으나 수입단가는 그보다 높은 11%의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별로 보면 70年代의 수출단가는 매년 평균 16% 상승하였고 수입단가는 17% 상승하여 그리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수출단가가 연 1.4% 상승한데 비하여 수입단가는 매년 3.7%씩 상승하여 수출단가보다 수입단가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역조건은 최근들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견된다.

마지막으로 輸出入構造를 보자. 먼저 수출구조는 87년 현재 식료품 및 산동물이 전체 수출의 36%, 원재료가 9%, 원료별제품이 20% 차지하고 있어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 중심의 수출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수출상품으로는 섬유류, 쌀, 타피오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연료, 원료용 기초제품, 그리고 기계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초화학이나 기초기계 등 자본재나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품목별 수출입

### (1) 品目別 輸出構造

〈표 2〉 상품류별 수출구성비 (단위 : %)

	1972	1978	1982	1985	1987
식료품 및 산동물	49.9	48.9	54.1	44.8	36.4
음료 및 연료	1.3	1.4	1.6	0.8	0.5
원재료	21.4	15.1	9.5	10.1	8.9
광물성연료	1.2	0.0	0.0	1.3	7.0
동·식물성유지	0.0	0.0	0.2	0.3	0.1
화학품	0.3	0.5	0.8	1.3	1.5
제조품	15.5	21.0	16.6	18.5	19.6
기계류	0.2	3.3	5.2	8.8	11.8
잡제품	1.5	5.1	8.4	12.4	19.2
기 타	4.9	2.4	1.3	0.7	0.8
재수출	3.9	2.2	2.3	0.9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Quarterly Bulletin*, 各號。

〈표 3〉 주요수출상품 (단위 : 구성비, %)

	1972	1978	1982	1985	1987
섬 유 류	1.2	3.1	8.7	12.2	10.2
쌀	19.7	12.6	14.1	11.6	7.6
타 피 오 카	6.9	13.1	12.4	7.7	6.9
고 무	8.3	9.7	5.9	7.0	6.8
접 계 회 로	—	—	3.7	4.3	5.1
귀 금 속	1.7	2.1	2.7	3.3	3.9
원 당	5.6	4.8	8.1	3.2	2.9
새 우	1.5	1.8	1.7	1.8	1.9
옥 수 수	9.3	5.1	5.2	4.0	1.3
주 석	7.4	8.7	4.9	2.9	0.8
기 타	38.4	39.0	32.6	42.0	46.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타이의 輸出構造를 10개의 상품의 분류로 나누어서 지난 70년 이후의 수출추이를 보면 식료품 및 산동물등 일차산업제품이 80년대 초기까지 總輸出의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열대지방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위주의 비교적 단조로운 輸出構造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로 접어 들면서 섬유 및 전자부문 등 輕工業部門에서의 조립산업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87년도에는 원료별 제품, 기계류, 잡제품 등 경공업 제품이 총 수출의 50%를 절하는 주요 수출품목으로 등장하였다(표 2).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1972년도에는 식료품 및 산동물이 총수출의 50%를 차지하였는데 쌀(20%), 옥수수(9%), 타피오카(7%)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리고 고무(8%), 원당(6%) 그리고 주석(7%) 등 원재료가 총수출의 21%를 차지하여, 농수산물 및 원재료가 총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제조품은 20% 미만에 그치는 농수산물 위주의 수출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같은 1차산업위주의 수출구조는 80년대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1982년도에는 農水產物(56%) 및 原材料(9%)가 총수출의 65%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製造業製品은 30%선에 머물렀다. 70년대 초기에 비해서는 1차산업제품의 비중이 다소 하락하는 반면 製造品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1차산업위주의 열대지방에 위치한 開途國이 갖는 전형적인 輸出

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1차산업위주의 輸出構造는 80년대에 들어서서는 경공업제 품위주의 수출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차산업비중이 40% 선으로 떨어지는 반면 製造品이 60%선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품수출이 20%, 기계류가 12% 그리고 기타 잡제품수출이 총 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기계류 및 잡제품의 수출비중이 70년대는 10% 미만으로 매우 미미하였으나 82년도에는 14%, 그리고 85년에는 21%로 상승하였으며 87년도에는 총수출의 30% 이상을 기계류 및 잡제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輸出構造의 高度化 趨移는 主要輸出商品의 변화에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표 3). 동표에서 보면 70년대의 수출을 주도한 商品은 쌀, 타피오카, 고무, 옥수수, 주석 등 1차제품이었다. 쌀의 경우 72년도에는 총수출의 20%를 차지하여 제 1의 수출품이었으며, 다음으로 옥수수(9.3%), 고무(8.3%), 주석(7.4%)이 單一品目으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1978년에도 쌀이 12.6%, 타피오카 13.1%, 고무 9.7% 그리고 주석이 8.7%를 차지하여 主種輸出商品構造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쌀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반면 섬유류의 비중이 15%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상하였다. 1987년도 주요 輸出商品의 구성을 보면 섬유류가 16.2%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던 쌀은 7.6%로 제 2위로 밀려났다. 그외에 타피오카, 고무, 옥수수, 주석 등의 비중은 매우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주석의 비중은 0.8%로서 주요수출상품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옥수수 및 원당도 3% 미만으로 크게 났아졌다. 그리고 특기할 것은 電子製品의 하나인 집적회로의 수출이 총수출의 5%나 차지하여 상위그룹에 속하는 輸出品目으로 크게 부상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70년대 수출을 주도하던 쌀, 타피오카, 고무, 원당, 옥수수, 주석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도의 57%에서 1982년에는 51%로 하락하였고 1987년에는 26%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섬유류 및 집적회로의 비중은 1972년도의 2%에서 1982년에는 12%로 그리고 1987년에는 21%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輸出品構成을 보면 단순가공조립형인 전자제품이나 노동집약적인 絲나 직물류에 치중되고 있어 수출품 구성이 아직은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 (2) 品目別 輸入構造

1987년 현재 타이의 總輸入을 상품의 분류로 나누어서 部門別 輸入構成을 보면 기계류가 32.2%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원료별 제품이 19.6%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학제품 및 광물성연료도 각각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표 4〉 상품류별수입구성비 (단위 : %)

	1972	1978	1982	1985	1987
식료품 및 산동물	3.9	2.6	2.6	3.7	4.2
음료 및 연초	2.0	0.9	1.2	0.9	0.4
원재료	6.7	6.7	5.8	6.6	7.4
광물성연료	10.1	21.0	30.9	22.6	13.4
동식물성유지	0.1	0.2	0.2	0.2	0.1
화학품	15.4	13.8	12.6	14.0	15.3
원료별제품	21.1	17.0	15.6	16.8	19.6
기계류	31.5	30.9	23.6	28.1	32.3
잡제품	6.2	4.4	5.7	5.6	5.0
기타	3.0	2.4	1.7	1.2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개서.

이와 같은 기계류 및 화학제품위주의 輸入構造는 지난 70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기계류, 원료별 제품, 화학제품, 광물성연료 등의 4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에는 78%, 1982년에는 83% 그리고 1987년에는 81%를 차지하고 있어 동제품들이 70년 이후 타이의 輸入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료품 및 산동물, 음료 및 연초 그리고 原材料 등 1차상품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년의 12.6%, 82년의 9.6%, 87년의 12%로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열대지방에 위치하는 他開途國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타이도 주로 工產品輸入國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輸入品目을 용도에 따라 분류해보면 원자재나 자본재 위주의 輸入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 현재 소비재 수입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자재가 37% 그리고 자본재가 37%를 차지하고 있다(표 5). 이같은 원자재 및 자본재위주의 輸入構造는 70년대 이래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음

〈표 5〉 용도별 수입

(단위 : 구성비, %)

	1972	1978	1992	1985	1987
소비재	16.0	11.9	9.6	9.5	10.3
(비내구재)	(10.6)	(6.9)	(5.5)	(5.1)	(5.2)
(내구재)	(5.4)	(5.0)	(4.1)	(4.4)	(5.1)
원자재	29.6	27.2	28.4	30.2	37.1
(소비재용)	(19.1)	(15.6)	(18.7)	(20.3)	(26.2)
(자본재용)	(10.5)	(11.6)	(9.7)	(9.8)	(10.9)
자본재	38.9	35.7	29.7	33.7	37.1
연료 유통유	10.1	21.0	30.9	22.6	13.8
기 타	5.5	4.3	1.4	4.0	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資本財의 수입구성

(단위 : %)

	1972	1978	1982	1985	1987
비료, 살충제	7.3	7.6	7.6	8.0	5.6
금속제품	8.4	5.8	5.3	5.9	4.9
일반기계류	42.5	40.9	37.9	41.0	41.2
전기기기	11.1	15.0	20.4	18.7	26.5
운반용기기	21.1	21.9	17.7	17.1	14.0
기 타	9.6	8.8	11.1	9.3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을 (표 5)는 보여 주고 있다. 즉 소비재구성비가 10%선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소비재수입비중은 70년대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소비재용 원자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중 소비재용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의 64%에서 1982년에는 66% 그리고 1987년에는 71%로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總輸入에서 소비재용 원자재수입이 점하는 비율도 1972년의 19%에서 1987에는 26%로 7%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자본재수입의 品目別 構成을 보자. (표 6)에서 보듯이 70년대 이후 일반기계류가 40% 이상을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타이랜드가 중공업 부문에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일반기계류 다음으로 자본재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은 전기기기로 1987년에는 동부문의 수입이 자본재수입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기기기부문의 수입비중이 80년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운반용기기의 수입은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어 자본제수입을 주도하고 있음을 (표 6)은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타이의 輸入構造는 국내의 취약부분인 화학, 기계 등 重工業部門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所得增大에 따르는 소비재용 원자재의 수입과 產業構造高度化 政策에 따른 기계류 및 자본재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지역별 수출입

#### (1) 地域別 輸出構造

1차산업의 수출비중이 50% 이하로 하락하여 경공업 중심의 輸出構造를 갖게 된 1980년대에 있어서 타이랜드의 地域別 輸出構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여러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80년대를 통하여 그다지 변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7).

1987년 현재 미국이 타이 수출품의 18.6%를 수입하여 단일국가로서 타이의 제 1 수출시장이며 다음으로 일본이 타이수출의 14.9%를 수입하여 제 2의 수출시장이다. 다음으로 지역적으로는 EC가 20.6%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고 아세안역내국에 대한 수출도 13.6%를 차지하고 있다.

80년대 초기보다 EC 시장이 다소 감소하고 미국시장이 다소 증가한 점 이외에는 80년대에 들어 타이 수출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어 海外市場이 다소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NICs에 대한 輸出比重은 80년 이후 7% 선에서 머무르고 있어 동시장에 대한 시장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地역별 수입구조

원자재 및 자본재위주의 輸入構造를 갖는 타이의 輸入市場을 地域別로 보면 수출시장과는 다소 다르게 일본시장에 매우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동표에서 보듯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82년의 23.4%에서 1987년에는 27%로 크게 상승하여 대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2%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아세안이나 EC 등

〈표 7〉 지역별 수출비중 (단위 : %)

	1982	1985	1986	1987
아세안 <sup>1)</sup>	9.5	14.5	14.3	13.6
아시아 NICs <sup>2)</sup>	7.3	7.5	8.3	7.0
일본	13.7	13.3	14.2	14.9
미국	12.7	19.7	18.1	18.6
ECA <sup>3)</sup>	23.0	18.0	20.0	20.6
기타	33.7	27.0	25.1	25.3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브루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2) 홍콩, 한국, 대만

3)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개서.

〈표 8〉 지역별 수입비중 (단위 : %)

	1982	1985	1986	1987
아세안 <sup>1)</sup>	13.1	18.2	14.1	15.3
아시아 NICs <sup>2)</sup>	5.7	6.3	7.5	7.8
일본	23.4	26.5	26.4	26.9
미국	13.3	11.3	14.3	12.7
ECA <sup>3)</sup>	10.9	13.6	13.8	15.1
기타	33.5	24.0	23.9	25.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2, 3) 〈표 7〉과 동일.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개서.

으로부터의 수입도 15%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및 일본시장에의 의존도가 40%에 이르러 상기 2개국에 대한 원자재나 자본재수입의존이 매우 높은데 이같은 양국에의 依存度가 다소 상승추세에 있음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균접한 아세안국가들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동국가들이 비슷한 수출입구조 및 산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등 아시아 NICs로부터의 수입비중은 80년대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나 절대적인 비중면에서는 아직 10% 미만에 머무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 (3) 지역별 무역수지

타이랜드의 무역수지는 80년들어 지속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1982

〈표 9〉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바트)

	1982	1985	1986	1987
아세안 <sup>1)</sup>	△10,783	△17,804	△ 783	△ 8,859
아시아 NICs <sup>2)</sup>	589	△ 1,281	1,297	△ 4,249
일본	△24,139	△40,759	△30,522	△42,106
미국	△ 5,963	9,582	7,701	14,536
EC <sup>3)</sup>	15,352	703	13,305	13,170
기타	△11,943	△ 8,244	927	△ 5,098
계	△36,888	△57,803	△ 8,075	△32,286

주 : 1, 2, 3) 〈표 7〉과 동일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년에는 369억 바트(약 16억 불), 1985년에는 578억 바트(약 21억 불) 그리고 1987년에는 323억 바트(약 13억 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는 他開發途上國에 비하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貿易赤字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무역수지를 地域別로 보면 80년대 이후 일본과 아세안국가들과는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고 EC 제국들과는 지속적인 黑字를 기록하였음을 (표 9)로부터 알 수 있다. 미국과는 84년 같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85년 이후로는 지속적인 貿易黑字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신흥공업국가들과는 흑자를 시현하기도 하고 적자를 보이기도 하고 있다.

주요국별로 보면 대일무역수지적자는 규모면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일무역역조가 심함을 알 수 있으며, 미국 및 EC와는 최근들어 黑字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타이의 貿易收支는 지역간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87년도의 대일무역수지적자는 1986년보다 116억 바트가 늘어난 421억 바트에 다다랐다. 한편 미국과는 145억 바트의 흑자를 향유하였고 EC 제국과도 132억 바트의 수출초과를 시현하였다.

#### 4. 주요 수출품의 국별구조

타이의 主要輸出品은 70년대에는 쌀, 고무, 주석 등 1차산품이었으나 80년대 이후로는 섬유류제품과 집적회로 등 경공업제품이 주요수출품목에 추

〈표 10〉 쌀의 수출시장 구조

(단위 : %)

		1982	1985	1986	1987
중	국	8.4	1.6	5.6	4.7
홍	콩	4.2	5.7	6.4	5.8
이	란	9.4	7.7	4.7	14.3
말 래 이 지 아		12.3	9.3	6.6	4.0
싱 가 포 르		6.3	5.8	7.2	6.7
U A E		0.4	1.8	3.0	4.5
기 타		59.0	69.1	66.5	60.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가되었다는 것은 (표 3)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면 이같은 수출주종상품이 어떤 국가로 수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출구조의 시장추이를 알아본다.

1987년도 상위 수출상품중에서 1차산품인 쌀과 고무, 그리고 2차산업제품인 섬유류와 접적회로의 市場構造를 살펴 보기로 한다.

#### (1) 1차산품

〈쌀〉 타이의 전통적인 주종산품인 쌀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홍콩의 아시아 국가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가 그리고 이란, UAE 등 중동국가로 수출되고 있다(표 10).

1980년대에 걸쳐 중국 및 홍콩에 12% 정도, 싱가포르 및 말레이지아에 14% 정도 그리고 이란과 UAE에 10% 정도를 수출하였음을 (표 10)이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쌀의 輸出市場은 정치적 원인과 각국에서의 작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政治的 및 宗教的으로 거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타이랜드로서는 언제나 쌀 수출시장 확보에 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國內產業構造의 변화로 인해 全體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함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보겠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쌀수출이 주로 개도국에 치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무〉 70년대 이래 총수출의 7~10%를 차지하고 있는 工業製品의 주요 원재료인 고무수출을 국별로 보면 (표 11)과 같다. 동표에서 보듯이 제 1의 수출시장은 단연 일본이며 다음으로 미국, 싱가포르, 중국 순으로 되어 있다. 특히 타이랜드고무의 거의 반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어 고무수출시

〈표 11〉 고무의 수출시장구조 (단위 : %)

		1982	1985	1986	1987
중	국	5.5	8.6	9.3	11.5
일	본	58.9	50.7	49.1	44.3
한	국	3.0	3.4	4.0	3.0
말 레 이 지	아	3.1	2.1	2.8	3.0
싱 가 포 르		10.4	6.7	5.1	5.9
타 이 완		1.3	2.6	3.1	3.1
서	독	2.0	3.7	4.3	3.1
미	국	9.0	12.0	11.6	9.1
기	타	6.8	10.2	10.7	17.0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장이 單一國家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市場의 確保라는 측면에서는 공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가격면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고무는 공업용원자재라는 특징으로 인해 살과는 달리 주요선진공업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일본, 미국, 서독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다다르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타이완, 한국 등 3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12~13%에 다다르고 있는 점이 이를 또한 뒷받침해 주고 있다.

## (2) 2차산업제품

〈섬유제품〉 1972년에는 總輸出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1.2%에 지나지 않아 수출품으로서 별로 중한 위치에 있지 못하던 纖維製品이 1982년에는 8.2%, 그리고 1987년에는 16.2%를 차지하고 있어 단연 주요 수출상품으로 부각되었다.

섬유제품의 수출시장은 (표 12)에서 보듯이 미국, EC, 일본 등 선진공업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80년도 초기까지는 미국시장이 섬유제품 총수출의 30%를 점하여 단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80년도 후반에 들어서서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EC 제국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독, 프랑스, 영국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싱가포르나 중동국가에 대한 수출도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으로 올수록 미국시장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다변화되고

〈표 12〉 섬유제품의 수출시장 구조

(단위 : %)

		1982	1985	1986	1987
일	본	4.4	1.9	1.9	3.2
사 우 디 아 라 비 아		5.1	4.7	6.8	7.7
싱 가 포 르		6.4	4.9	5.0	4.8
U A E		4.1	4.3	5.3	5.6
프 랑 스		3.7	2.5	3.8	4.0
서	독	9.6	8.4	10.1	10.3
이 탈 리 아		6.2	4.9	4.7	4.0
영 국		5.9	3.3	4.9	5.2
미 국		18.9	32.5	20.6	19.7
기 타		35.7	32.6	36.9	35.5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표 13〉 집적회로의 수출시장 구조

(단위 : %)

		1982	1985	1986	1987
홍 콩	콩	9.5	2.7	1.4	2.4
한 국		0.6	0.8	0.7	2.4
말 레 이 지 아		4.4	13.0	13.3	11.9
싱 가 포 르		38.7	26.9	30.8	27.0
프 랑 스		0.5	4.6	2.3	0.5
서	독	3.1	1.2	2.8	3.5
영 국		1.8	4.0	3.1	3.7
미 국		40.7	41.2	42.0	45.2
기 타		0.7	5.6	3.6	3.4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적회로〉 80년대 들어 主要產業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電子產業의 일제 품인 집적회로의 수출은 1987년 현재 總輸出의 5%를 차지하게 되어 주요수출상품으로 부상하였다.

집적회로의 수출시장을 보면 미국시장이 40% 정도, 그리고 싱가포르시장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과 싱가포르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 (표 13). 구체적으로 1982년도에는 미국이 41%, 싱가포르가 39%를 차지하여 총집적회로수출분의 거의 80%가 상기 2개국에 집중되었다. 그후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1987년도에는 미국의 비중이 45%, 싱가포르의 비중이 27%로 상기 2개국의 비중이 72%에 다다르고 있어 여전히 양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외에 말레이지아로 12%를 수출하고 있으며 영국 및 서독에 각기 3.5% 정도 그리고 韓國 및 홍콩에 각기 2.4% 정도를輸出하고 있다.

집적회로의 경우도 섬유제품과 같이 先進工業國이나 新興工業國에 수출시장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섬유제품보다 특정된 몇개국(미국, 싱가포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상기 2개국에서 전자공업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EC 제국 및 한국, 타이완 등에서 電子工業이 성숙단계에 이르면 동국에 대한 輸出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같이 타이랜드의 輸出構造를 주요품목별, 국별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① 타이의 수출품이 점차 1차산품에서 2차산품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 ② 1차산품은 주로 開途國에 輸出하고 있으며, 원재료 및 중간제품은 선진공업국이나 선발개도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 ③ 1차산품은 비교적 여러 나라에 고르게 수출하여 다양한 輸出市場을 갖고 있으나, 2차산품은 미국, 일본 등 수개국에 수출이 평준되고 있다.

## 5. 주요 수입품의 국별구조

타이랜드의 수입선은 日本과 美國에 다소 치우쳐 있다고 앞에서 보았다. 이러한 輸入의 國別構造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輸入品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재, 중간재 및 원재료(원자재라 칭한다), 자본재로 나누어서 각기의 국별구조를 미국, 일본, 서독, 영국 등 先進國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비재

소비재가 總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전후이다. 이러한 소비재의 일본, 미국, 서독, 영국 등 선진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982년의 53.3%, 1985년의 59.2%, 1987년의 52.4%로 50%를 상회하고 있어 타이의 소비재수입의 절반이 상기 4개국으로부터 輸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표 14〉 소비재 수입 국별 비중

(단위 : %)

	일 본		미 국		서 독		영 국		계	
	소비재	총수입	소비재	총수입	소비재	총수입	소비재	총수입	소비재	총수입
1982	29.3	23.4	12.1	13.3	6.7	3.9	5.2	2.5	53.3	43.1
1985	33.7	26.5	12.2	11.3	7.1	5.5	6.2	2.5	59.2	45.8
1986	31.4	26.4	12.7	14.3	6.7	5.8	6.1	3.2	56.9	49.7
1987	26.2	26.9	14.1	12.7	5.5	5.9	6.6	3.2	52.4	48.7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이를 각국별로 보면 일본이 1982년의 29%, 1985년의 34% 그리고 1987년의 26%로 제 1의 소비재수입선임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전기간을 통하여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타이의 소비재수입의 對日依存度는 總收入依存度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타이가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소비재를 들여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소비재수입의존도는 總輸入依存度를 하회하고 있다.

한편 서독 및 영국으로부터의 소비재수입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으나 상기 국가로부터의 소비재 輸入依存度가 總輸入依存度를 초과하고 있어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독 및 영국으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 (2) 원자재

중간재 및 원재료의 수입을 앞서와 같이 일본, 미국, 서독, 영국 등 선진 4개국에 국한하여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비중이 단연 높음을 알 수 있다(표 15). 그러나 소비재와는 달리 상기 4개국 총비중이 總原資財輸入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 비중도 최근으로

〈표 15〉 중간재 및 원자재수입 국별 비중

(단위 : %)

	일 본		미 국		서 독		영 국		계	
	원자재	총수입	원자재	총수입	원자재	총수입	원자재	총수입	원자재	총수입
1982	28.7	23.4	15.3	13.3	3.1	3.9	2.1	2.5	48.2	43.1
1985	28.1	26.5	11.7	11.3	4.2	5.5	2.4	2.5	46.4	45.8
1986	25.0	26.4	11.6	14.3	3.7	5.8	2.1	3.2	42.4	49.7
1987	21.8	26.9	9.2	12.7	4.5	5.9	2.4	3.2	37.9	48.7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표 16〉 자본재수입의 국별 비중

(단위 : %)

	일 본		미 국		서 독		영 국		계	
	자본재	총수입	자본재	총수입	자본재	총수입	자본재	총수입	자본재	총수입
1982	35.8	23.4	24.0	13.3	8.1	3.9	5.2	2.5	73.1	43.1
1985	37.7	26.5	15.2	11.3	9.1	5.5	3.5	2.5	65.5	45.8
1986	32.6	26.4	21.8	14.3	8.6	5.8	3.9	3.2	66.9	49.7
1987	35.5	26.9	21.5	12.7	7.7	5.9	4.1	3.2	68.8	48.7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올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타이의 원자재수입선이 상기 4개국 위주에서 벗어나 점차 多樣化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중반 이후 상기 4개국에 대한 원자재수입의 존도가 총수입의 존도를 하회하고 있음은 이같은 원자재수입시장다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7년도에는 일본으로부터 原資財依存度가 21%선으로 하락하였으며, 대미원자재수입 의존도도 10% 미만으로 떨어져 상기 4개국으로부터의 原資財輸入比重이 40% 미만으로 크게 줄어들었음이 두드러진다.

### (3) 자본재

80년대 이후 工業化가 진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자본재수입의 일본, 미국, 서독, 영국 등 선진 4개국에 대한 依存度 추이를 보면 (표 16)과 같다.

먼저 타이의 자본재수입의 거의 70%를 상기 4개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이 35%, 미국이 21%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 미국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상기 2개국에 대한 資本財依存度가 매우 높다.

따라서 타이는 비료, 金屬製品, 機械類, 電氣機器, 정밀기기 등의 기간자본재를 주로 日本이나 美國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는데 동 비중이 工業化가 짹트던 80년 초기에 높았고 다시 80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크게 높아지고 있음(일본과 미국의 비중 : 1982년 60%, 1985년 53%, 1986년 54%, 1987년 57%)은 주목할 만하다.

이같이 타이의 输入을 용도별, 國別로 나누어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① 전반적으로 消費財, 原資財, 資本財 모두 일본에 대한 输入依存度가

높다.

- ② 특히 消費財와 資本財의 경우 일본에 대한 輸入依存度가 매우 높다.
- ③ 일본, 미국, 서독, 영국 등 선진 4개국에 대한 輸入依存度는 소비재와 資本財의 경우가 높은데 특히 자본재의 경우는 總輸入依存度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上승추세에 있다.
- ④ 원자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기 4개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III. 서비스 무역현황

타이의 서비스무역은 觀光資源을 위주로 매우 활발하여 매년 黑字를 시현하고 있으며 그 黑字規模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표 17).

1982년에는 서비스무역수취는 593억 바트(약 26억 불)인데 지금은 505억 바트(약 22억 불)로 88억 바트(약 4억 불)의 黑字를 시현하였다. 그후 흑자폭이 매년 증가하여 1986년에는 수취가 877억 바트(약 34억 불)로 증가하였고 지금도 727억 바트(약 28억 불)로 늘어나 서비스 무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黑字規模도 120억 바트(약 6억 불)로 늘어났다.

이러한 서비스교역을 수취측과 지급측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무역외수지 추이 (단위 : 백만바트)

	1982	1983	1984	1985	1986
수    취	59,269	67,136	72,741	85,879	87,664
지    급	50,474	50,561	57,542	70,627	72,711
수    지	8,795	16,575	15,199	15,252	14,953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 1. 수    취

서비스무역수취액은 1982년의 563억 바트에서 1983년에는 19% 크게 늘어난 671억 바트에 다다랐고 1984년에는 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1985년에는 전년보다 18% 크게 增加하여 859억 바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6

년에는 전년비 2% 증가에 그쳐 877억 바트에 머물렀다.

이를 서비스項目別로 보면 운임, 보험료, 기타 운수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은 그 증가세가 다소 기복을 나타냈으나 서비스수취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행서비스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이 서비스부문수취를 주도하였다.

서비스수취부분의 서비스별구성비를 보면 서비스수취의 40%를 여행 서비스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 서비스가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부문수취를 주도하고 있다. 商品輸入과 직접 관계되는 운임, 보험료는 10%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海外投資에 따르는 송금수입은 7%선에 머무르고 있다(표 18).

각 서비스별 추이를 보면 商品輸入量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운임·보험료 수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海外投資에 따르는 과실송금수취는 미약하나마 그 절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음을 (표 18)은 보여주고 있다. 다른 서비스부문은 80년대 들어 별로 변동하지 않고 있다.

〈표 18〉 서비스 무역 수취 구성 (단위 : %)

	1982	1983	1984	1985	1986
운임, 보험료	8.5	8.9	9.7	10.7	10.3
기타 운수	5.6	5.3	5.5	4.2	3.4
여행	40.3	37.3	37.5	37.0	42.6
투자소득	9.5	7.8	7.2	7.7	7.1
정부서비스	3.9	3.9	3.5	4.5	3.4
기타서비스	32.2	36.8	36.6	35.8	33.2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개서.

## 2. 지 급

1982년에는 서비스교역에 따른 지급이 505억 바트였으나 1985년에는 706억 바트로 크게 늘었다. 이의 주된 요인은 외국인투자에 따른 投資所得이 海外로 흘러나갔음에 기인한다. 80년대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해외투자유치 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아온 반면 이에 따른 과실송금이 80년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서비스교역에 따른 지급을 서비스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투자소득지출이 전체 서비스지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84년 이후 동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은 특이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여행에 따른 지급이 1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동서비스의 비중은 80년중반 이후 다소 줄어 들고 있다. 그리고 商品輸出에 따른 운임·보험료지급은 비교적 안정된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된 추세는 기타 운수서비스나 정부서비스에서도 유지되고 있다(표 19).

〈표 19〉 서비스무역지급구성 (단위 : %)

	1982	1983	1984	1985	1986
운 임 · 보 협	6.9	5.7	6.4	6.2	6.1
기 타 운 수	4.5	6.0	4.8	5.0	4.6
여 행	12.2	15.6	12.6	10.8	10.7
투 자 소 득	60.7	57.7	61.6	63.4	64.7
정 부 서 비 스	3.1	2.9	2.1	2.7	2.4
기 타	12.6	12.1	12.4	11.8	11.5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제서.

따라서 서비스지급면에서 볼 때 投資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선책이 대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서비스별 무역외 수지

貿易外收支를 서비스별로 그 요인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역외 수지흑자의 주요요인은 여행서비스부문이고 무역외수지 적자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은 투자소득의 해외유출임이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표 20).

무역외수지 흑자 기여도를 서비스별로 보면 여행서비스, 기타서비스, 운임·보험, 그리고 정부서비스순이다. 그리고 무역외수지적자요인으로는 투자소득 뿐인데 1986년에는 기타운수서비스부문도 적자요인으로 작용하였다.

黑字要因인 여행서비스의 黑字規模는 매년 크게 늘어가고 있어 타이랜드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赤字要因인 투자소득해외유출규모도 80년 중반 이후 크게 늘어가고 있음은 다른 開發途上國, 특히 工業化를 적극 추진하는 開途國에서 발견되는 일

〈표 20〉 서비스별 무역의 수지 (단위 : 백만바트)

	1982	1983	1984	1985	1986
운임·보험	1,551	3,081	3,370	4,858	4,583
기타운수	1,011	535	1,272	48	△ 367
여행	17,727	17,154	20,027	24,145	29,523
투자소득	△24,983	△23,934	△30,219	△38,173	△40,836
정부서비스	732	1,134	1,301	1,940	1,253
기타서비스	12,756	18,605	19,448	22,424	20,797
총계	8,795	16,575	15,199	15,252	14,953

주 : △는 적자를 나타냄.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계서.

반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이도 이의 예외는 아님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해외투자의 적극 유치는 이러한 무역의수지 적자요인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여행서비스 부문과 기타 서비스부문에서의 강한 黑字要因이 이를 상쇄할만한 강한 잠재력이 있다고 볼 때 무역의수지 黑字는 지속될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아닐 것이다.

#### IV. 직접투자 현황

타이랜드는 1960년대 이후 高度成長을 목표로 한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는 일본 자본의 대거 진출로 인한 반작용으로 다소 주춤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의 부상과 아세안제국들의 高度成長에 자극되어 해외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였는 바 최근 해외자본이 활기를 되찾고 타이로 진출하고 있다.

##### 1. 직접투자 추이

1970년대 이후 外國人에 의한 對타이투자를 규모면에서 보면 1970년에는 9억 바트(약 42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38억 바트(약 1억 8천만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후 계속 증가하여 1984년에는 96억 바트(약 4억 불)로 크게 늘어났다. 1985년에는 44억 바트(약 1억 6천만불)로 급락하다가 1986년에는 69억 바트(약 2억 6천만불)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984년의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표 21).

〈표 21〉 外國人直接投資

(단위 : 백만바트)

	직접투자 (1)	국내총투자 (2)	(1)÷(2) (%)	총민간투자 (3)	(1)÷(3) (%)
1970	891	35,606	2.50	22,248	4.00
1973	1,605	51,711	3.10	33,523	4.79
1975	1,745	75,747	2.30	50,683	3.44
1978	1,011	126,950	0.80	79,928	1.26
1980	3,816	186,258	2.05	114,843	3.32
1982	4,339	177,772	2.44	113,415	3.83
1983	8,192	212,271	3.86	133,068	6.16
1984	9,624	236,645	4.07	147,264	6.54
1985	4,379	244,411	1.79	141,191	3.10
1986	6,880	235,705	2.92	144,302	4.77

자료 : Somsak & Medhi, *Recent Trend in Japanese Investment in Thailand*, 1988.

이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國內總投資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70년 전반기에는 3% 수준을 유지하다가 70년 후반기에는 동비중이 하락하여 1978년에는 국내총투자중 해외직접투자가 0.8%만을 차지하였다. 그후 80년 중반까지 다시 상승하였는데 1984년에는 國內總投資의 4.07%가 해외직접투자분이었다. 그러나 1985년에는 1.8%로 크게 떨어졌고 1986년에는 해외투자가 국내총투자의 2.92%를 차지하여 70년대 초기수준을 회복하였다 한편 국내총민간투자중 海外投資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3%에서 6% 사이를 왔다 갔다하고 있다.

이같이 볼 때 해외직접투자가 타이의 국민경제 전체에서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農業爲主의 經濟構造에서 경공업 나아가 고도공업화경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타이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海外資本의 유치측면이 아니라 先進工業技術의 습득면이나 고용 등 과급 효과가 큰 製造業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海外投資의 적극 유치는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외국기업의 적극 유치정책은 肯定的인 評價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國內產業活性化를 위한 해외투자유치정책은 농산물이나 1차자원이 풍부하다는 타이랜드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내자원의 가공을 촉진한다든가 노동집약산업 유치를 통한 雇傭增大 그리고 輸出產業을 成長 發展시키는데 그 주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2. 직접투자의 구성

〈투자유형별〉 타이의 直接投資를 자본투자(equity investment)와 대부에 의한 투자(loan investment)로 구분하여 형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資本投資에 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2). 이는 開途國 經濟構造가 취약하고 技術水準이나 개발전략의 미흡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낙후된 產業을 활성화시키든가 신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산업을 개발 확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海外資本의 도입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技術이나 플랜트건설이 수반되는 자본투자가 보다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표 22)에서 보듯이 70년대 이후 자본투자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1984년에는 76억 바트로 피크에 다다랐다. 그후 그 규모가 다소 줄어들어 63억 바트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외국자본의 유치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1987년에는 9개월분이 70억 바트에 달하는 급격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이자본의 海外投資로 인한 유출은 규모면에서 볼 때 유입분의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이 저조하였던 1980년 중반기를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특히 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타이랜드로의 자금대여(loan)에 의한 외국자금의 유입은 70년 이래 1980년 초기까지 꾸준히 增加하여 자본투자 추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타이자본의 투자 loan으로 인한 海外로의 유출도 크게 증가하였

〈표 22〉 外國人 直接投資構成 (단위 : 배만바트)

	자본투자			대부			순직접투자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1970	685	23	661	328	99	228	890
1975	1,654	358	1,296	1,737	1,288	446	1,744
1980	3,703	194	3,508	5,555	5,248	307	3,816
1982	3,884	498	3,585	5,712	4,579	952	4,338
1983	7,255	426	6,829	6,688	5,326	1,362	8,191
1984	7,619	494	7,125	9,357	6,859	2,498	9,624
1985	6,341	954	5,387	3,826	4,884	-1,008	4,379
1986	6,304	496	5,808	4,221	3,149	1,072	6,880
1987 <sup>1)</sup>	6,983	272	6,711	1,180	2,438	-1,258	6,453

주 1) 1월 ~ 9월

자료 : Somsak & Medhi, 전개논문.

다. 따라서 海外資本의 타이랜드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1980년 중반 기 이후는 타이 자본의 海外流出이 外國資本의 타이유입분을 초과하여 마이너스 투자를 보이고 있음을 특이하다.

이같이 볼 때 타이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양태는 자국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技術을 수반한 의자유치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海外資本市場에의 進出 또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타이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순자본유입을 國家別로 보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3).

70년도 초기의 直接投資에 의한 자본유입의 40%는 미국인에 의한 投資이었고 다음이 일본인에 의한 投資로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으로부터의 자본순유입도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英國 및 싱가포르가 각각 5.6%, 5.3%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70년 전반기에는 미국, 일본, 홍콩, 영국, 싱가포르가 외국 자본유입총액의 87%를 차지하는 主要投資國임을 알 수 있다.

70년대 후반기에도 전반기와 같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이

〈표 23〉 직접투자에 의한 순자본유입의 국가별 구성(1971~1987) (단위 : %)

국 가 별	1971~75	1976~80	1981~85	1986	1987 (1월 ~ 9월)
일 본	26.4	31.7	27.3	44.3	30.5
미 국	39.9	24.8	32.2	18.8	22.1
영 국	5.6	6.3	5.1	3.6	4.5
서 독	0.8	6.2	2.4	2.3	3.3
프 랑 스	2.7	0.2	0.9	1.3	1.1
네 델 랜 드	2.6	1.1	6.3	(순유출)	0.7
이 태 리	0.9	5.3	0.7	1.1	0.1
호 주	0.7	0.4	1.2	2.1	0.2
홍 콩	9.9	13.7	8.6	13.7	9.9
싱 가 포 르	5.3	6.9	3.6	5.9	9.1
말 레 이 지 아	1.1	1.6	0.7	0.1	0.2
페 리 핀	0.7	(순유출)	0.1	0.8	0.0
대 만	0.2	0.0	0.8	1.9	7.2
기 타	3.2	1.8	10.1	4.1	11.1
계 (백만바트)	100.0 (9,421.6)	100.0 (9,652.4)	100.0 (32,896.6)	100.0 (6,880.2)	100.0 (5,433.4)

자료 : Somsak & Medhi, 전개논문.

主要投資國이고 이에 서독과 이탈리아가 가세한 양상을 띠고 있다. 70년전 반기와 다른 점은 일본이 제 1의 投資國으로 부상하였다는 것과 홍콩의 비중이 14%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70년 후반기에는 일본, 미국, 홍콩, 싱가포르, 영국의 비중이 83% 수준으로 전반기의 87%에서 다소 줄어 들었고 각국의 차이도 크게 줄어들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독과 이태리의 비중이 6.2%, 5.3%로 각각 크게增加하였다.

80년 전반기에 와서는 미국이 다시 제 1위국으로 부상하였고 네덜란드가 총자본유입의 6.3%를 차지하는 主要投資國으로 대두된 점이 특이하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주요 5개국의 비중이 77%선으로 70년도에 비해 다소 후퇴하였다.

1986년과 1987년의 外國人直接投資構成을 보면 여전히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영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1986년 전기간을 통털어 볼 때 타이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중 미국과 일본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NICs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15~20%

〈표 24〉 장려사업인가증취득기업의 등록자본규모(1960~1987)

(단위 : 백만바트, 87년 말 현재)

소 유 국 별	100% 소유	합작투자	합 계	
			금 액	%
타 일 랜 드 의 국	19,994 4,329	15,191 11,546	35,185 15,875	68.9 31.1
1. 일 본	2,972	3,316	6,288	12.3
2. 미 국	439	1,577	2,016	3.9
3. 대 만	32	1,260	1,292	2.5
4. 영 국	106	836	942	1.8
5. 홍 콩	40	594	634	1.2
6. 싱 가 포 르	111	398	509	1.0
7. 호 주	200	153	353	0.7
8. 네 텔 란 드	185	136	321	0.6
9. 스 위 스	16	274	290	0.6
10. 말 레 이 지 아 기 타	5 223	279 2,723	284 2,946	0.6 5.9
계	24,323	26,737	51,060	100.0

자료 : Somsak & Medhi, 전개논문.

를 점하고 있으며 영국, 서독, 네덜란드 등 EC 국가가 10% 내외를 차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만이 가세하여 아시아 NICs의 대타이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1986년에는 동국가들에 의한 投資가 대타이總直接投資의 22%에 달하고 있으며 198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동비중이 26%에 달하고 있어 타이의 外國의 直接投資의 1/4 이상을 아시아 NICs가 점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한편 1987년 말 현재 장려사업인가증(Promotion Certificates)을 취득한 企業의 등록자본 규모를 국가별로 분류하면 (표 24)와 같다.

동장려사업인가증취득기업의 68.9%(등록자본금기준)가 타이인 소유이고 31.1%가 외국인 소유이나 외국인소유기업을 國家別로 보면 일본이 12.3%, 미국이 3.9% 대만이 2.5% 영국이 1.8% 그리고 홍콩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즉 外國人 소유기업의 39.5%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12.5% 대만이 8%를 점하고 있어 타이진출 주요국이 일본, 미국, 대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미국, 대만, 영국, 홍콩의 5개국이 대타이외국인 投資企業의 70%를 점하는 주요한 技術 및 資本輸出國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100% 소유와 합작투자(joint venture)로 구분하여 보면 100% 소유장려사업기업의 17.7%가 외국인 소유이나 합작투자형태의 경우는 외국인 소유분의 43.2%에 이르고 있다.

100% 소유형태외국인소유기업의 68.6%가 일본인 소유로 日本資本의 타이 진출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10%를, 4.6%를 호주, 4.3%를 네덜란드, 2.6%를 싱가포르, 2.4%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 및 유럽국가의 타이에 대한 直接投資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합작투자의 경우를 보면 일본이 외국인투자중 28.7% 미국이 13.6% 대만이 10.9%, 영국이 7.2%, 홍콩이 5.1%, 싱가포르가 3.4%, 말레이지아가 2.4%, 스위스가 2.4%를 차지하고 있어 100% 소유형태의 경우보다 대일편중도가 아주 낮으며 상대적으로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국들의 비중이 22%에 점하고 있어 일본의 비중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86년 이후 최근의 외국인투자신청추이를 보면 대만 및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가 급격히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5).

〈표 25〉 외국인 투자신청추이 (단위: 件, 백만마트)

	1 9 8 6		1 9 8 7		1988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 본	54	14,729	204	47,705	182	60,982	127.5	217.6
대 만	35	2,870	178	14,658	196	29,206	300.0	412.4
홍 콩	17	2,006	47	7,044	46	4,538	170.6	97.3
미 국	23	14,096	58	20,504	60	17,334	140.0	233.3
E C	42	16,292	110	33,131	50	16,441	16.7	250.0

자료 : 산업연구원, 「타이랜드」, 1988, p.28 제인용.

〈표 26〉 직접투자에 의한 순자본유입의 산업별 구성(1971~1987) (단위 : %)

산 업	1971~75	1976~80	1981~85	1986	1987 (1월 ~9월)
금 응	21.4	(순유출)	0.0	7.4	0.3
무 역	19.7	22.5	17.6	25.8	9.0
전 설	9.9	17.0	16.4	17.9	14.3
광 업	16.0	10.3	21.9	3.5	3.1
(석유탐사)	(14.8)	(7.4)	(19.6)	(3.4)	(3.1)
농 업	0.3	2.0	0.6	2.9	3.7
제 조 업	28.0	34.4	32.9	30.6	59.5
(식 료)	(3.9)	(2.6)	(1.8)	(4.1)	(5.3)
(섬 유)	(12.9)	(7.1)	(2.7)	(1.2)	(14.5)
(금속, 비금속)	(1.7)	(1.2)	(3.8)	(순유출)	(3.8)
(가전기기)	(3.5)	(12.9)	(9.1)	(8.9)	(14.7)
(기 계)	(0.6)	(3.6)	(2.8)	(0.2)	(1.1)
(화 학)	(3.1)	(5.0)	(4.3)	(7.0)	(3.2)
(석유제품)	(0.6)	(0.6)	(6.2)	(0.1)	(0.4)
(건설자재)	(0.6)	(순유출)	(0.0)	(0.0)	(0.1)
서비스	4.7	14.8	10.6	11.9	10.1
(교통여행)	(2.0)	(8.8)	(3.6)	(3.7)	(0.8)
(부 동 산)	(1.0)	(2.1)	(1.5)	(0.6)	(0.8)
(호텔, 요식)	(1.0)	(0.9)	(1.8)	(1.4)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백만마트)	(9,421.6)	(9,652.5)	(32,896.9)	(6,880.2)	(5,453.5)

자료 : Somsak & Medhi, 전계논문.

(표 25)에서 보듯이 대만의 경우 1988년 상반기 투자신청건수는 300% 증가하였고 금액면에 있어서는 412%의 큰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동기간중 홍콩도 투자건수가 170%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근들어 아시아의 선발개도

국들의 타이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다른 면에서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 70년 이후 산업별 직접투자규모를 고찰해 보자.

먼저 외국인순투자중 製造業部門에 대한 순투자비중은 70년 전반기에는 28%였으나 70년 후반기에는 34.4%로 증가하였으며 80년 전반기에도 33%에 이르고 있어 동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7년도에는 總外國人純投資의 59.5%가 製造業部門에 집중되어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70년도에는 製造業部門에 대한 外國人投資 중 70%가 섬유, 식료, 가전기기 등 경공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80년 전반기에는 동경공업부문의 비중은 40%로 떨어지고 석유제품, 금속제품 등 중공업부문의 비중이 60%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경공업부문의 비중이 60%로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의 비중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製造業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무역업부문으로 70년대에는 총외국인순투자의 20% 정도, 80년대에는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무역업부문의 비중은 1987년에는 9%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으로 外國人純投資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建設부문으로 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으며 80년 전반기에는 총외국인순투자의 17%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 社會 및 產業基盤構築을 위한 타이정부정책이 지속될 경우 동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광업자원개발 특히 석유탐사를 위한 외국인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기복이 심하고 최근에는 그 비중이 3%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 V. 경제협력정책

제 5의 NIC를 꿈꾸고 經濟政策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타이 정부는 자국의 投資環境을 개선하여 先進國으로부터는 물론 인근의 선발개도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 등으로부터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다. 따라서 타이랜드는 이와 같은 政策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투자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폐하고 있는 분야는 농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農業部門, 國內의 豐富한 資源

을 가공하는 가공산업, 고용효과가 큰 노동집약산업,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 할 수 있는 輸出產業 그리고 수도권 이외에 입지하여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시키고 地方產業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리고 基本的으로 國內 技術水準이나 生產規模가 이미 일정수준에 도달 한 산업부문에 대하여는 外國人投資를 억제하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에 대한投資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하고 있다.

### 1. 무역정책

타이랜드는 자유무역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어 輸出入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이 누구나 무역에 종사할 수 있으나 國內產業保護 및 市場秩序維持를 위해 수출금지품목, 수출허가품목, 수입금지품목, 수입허가품목 등을 정하여 실체적으로 보호주의색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역관계법규로는 輸出入法, 投資獎勵法, 關稅法, 外換管理法 등이 있다. 그러나 아세안역내교역증진을 위해 특혜관세적용등 아세안국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아공화국이 유일한 교역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입관리〉 대부분의 상품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으나 사치품, 國內育成品에 대해서는 수입이 매우 어렵다. 특히 國內產業保護를 위한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상무성이 投資獎勵法에 의거 선정·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규제조치로는 輸入許可制, CIF 가격의 50%까지의 수입과 정금부과, 은행별 L/C 발급한도제 외에도 조립산업에 대한 국산화의 무품목 설정, 각종 입찰에서 자국산우대조치 등이 있다.

輸入許可品目으로는 금, 차(茶), 종이류, 중고차, 염화비닐제품, TV 등 62개 품목에 이른다.

〈수출관리〉 國內輸出產業育成을 위해 각종 租稅減免, 금융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외에 국내자원보호, 국내수요충족, 적정가격유지 등을 위해 일부 品目은 輸出禁止 또는 許可를 요한다.

輸出許可品目으로는 쌀, 옥수수 등 농산물, 주석, 철광석 등 광산물, 목재, 합판류 그리고 제조품으로는 보석류, 설탕제품, 철강판, 면사, 비료 등 인데 모두 44개 품목에 이른다.

그리고 미국, EC 등 퀘터지역의 수출퀘터는 政府가 직접 할당한다.

〈관세제도〉 관세용 상품분류는 CCCN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  
분 CIF 가격기준 종가세방식을 적용하나 생사, 소가죽 등에 대해서는 종량  
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基本輸入關稅 이외에 10% 내외의 표준이윤세와 사업세를 부과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한시적인 10~30%의 수입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세수증대 및 產業保護를 위해 쌀, 천연고무, 원피, 생사, 전어물 등에 대  
해서는 輸出稅를 부과하고 있다.

〈외환관리〉 타이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환집중제도에 따라 거  
주자는 보유외화를 7일 이내에 외국환집중기관에 매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投資目的으로 外貨를 타이에 반입하는 데는 금융제한이 없으나 현지  
화로 교환하고자 할 때는 중앙은행에 등록하여야만 투자원금, 과실, 배당금  
등을 송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교적 융통성있게 운용하고 있다.

1984년 11월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바트화의 대달러환율을 23:1에서 27:  
1로 17.4% 절하함과 동시에 미달러화링크제에서 복수통화바스켓제로 변경  
운용하고 있다.

## 2. 외국인 투자정책 및 제도

1970년대 초기 자본내소날리즘의 대두로 新投資法을 제정 외국기업규제,  
외국인직업법 등을 제정하여 外國資本의 선별적 도입을 원칙으로 한 결과  
投資의 격감을 가져 왔다. 이러한 정책은 60년대의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  
의 추진으로 일본 자본의 대거 유입에 따른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데 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인근 아세안국가들, 특히 아시아신흥공업국들의 빠른 經濟  
成長은 타이인이 가지고 있는 民族的 자긍심을 부추기게 되어 적극적인 외  
자유치정책으로 전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7년 投資獎勵  
법을 제정하고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行  
政節次의 간소화, 輸出產業의 육성, 工業의 지방분산 그리고 외자의 선별적  
투자유치를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80년대 들어  
특히 최근에 外國人 投資가들이 대거 타이랜드로 진출하고 있다.

〈關聯法規 및 機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장  
려법(Promotion of Investment Act)이 197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으로는 외국인 사업법(Alien Business Law, 1972) 및 외국인

직업법(Alien Occupation Law, 1978) 등이 있다.

외국인투자 전담기관으로는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가 있는데 BOI는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료급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부속기관으로 BOI 사무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를 두고 있다. BOI는 자국산업의 동향에 맞게 投資獎勵法의 제규정을 해석·운용하면서 필요한 부문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투자장려기업의 조건을 결정하는 강력한 權限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인허가취득협조 등 절차상의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投資獎勵業種〉 투자장려업종은 BOI가 정한 126종인데 아래와 같다.

- 농산품부문 : 농산품가공, 사료, 식육가공, 고무제품 등 20종
- 광업·금속·요업부문 : 채광, 선광, 제련, 요업 등 5종
- 화학제품분야 : 석유화학제품, 약품, 비료, 도료 등 13종
- 機械와 電氣設備部門 : 자동차부품, 엔진조립, 부품산업 등 7종
- 기타제조업부문 : 시계, 문구, 사진기, 조성 등 55종
- 서비스부문 : 창고업, 공업단지 조성 등 26종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 먼저 조세 측면에서의 특혜를 보면 輸出製品의 영업세, 사업세 면제; 奨勵企業의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면제; BOI가 인정한 공장건설용설비, 생산설비의 수입세, 영업세 면제; 소득이 발생한 낸도로부터 3~8년간 法人稅 감면; 상표 및 로얄티 수입에 대해 5년간 면제; 수출용 원자재수입과 재수출용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세 및 영업세의 90%까지 면제 등이다.

그리고 外換管理部門에서는 외국인투자장려기업의 비국유화 및 송금보장제도가 있다.

간접적인 제도 측면에서 장려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투자위원회는 外國製品에 CIF 가격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조치〉 외국자본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업종을 A, B, C로 구분하고 외자의 진출을 業種別로 규제하여 자국인의 투자기회 확보와 자본의 타이화를 기하고 있다(외국인 사업규제법, 1972년 제정, 1978년 개정).

외국인취업금지분야를 법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취업허가를 의

무화함으로써 외국기업을 인적 측면에서 통제하고 있다(외국인 직업규제법, 1972년 제정, 1978년 개정).

## VII. 한국과의 경제협력 방안

1987년 현재 한국의 대타이 무역의 존도는 0.5% 정도이고 타이의 대한국 무역의 존도는 2% 미만으로 양국간의 교역이 각국에서 가지는 비중은 매우 낮다. 그러나 양국의 產業構造의 차이, 經濟發展段階의 차이, 부존자원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양국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이 양국에 똑같이 이로울 것이다. 본항에서는 양국의 貿易規模 및 構造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상호 교역 증진 방안을 탐진해 본다.

### 1. 한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무역〉 타이랜드와 韓國의 經濟交流를 먼저 상품무역면에서 고찰하면 양국이 자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양국간의 교역이 타국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7)에서 보듯이 한국의 총수출 중 타이랜드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에 걸쳐 1% 미만이며 총수입 중 타이랜드로 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0.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상품총교역면에서 볼 때도 한국의 대타이 수출입 의존도는 80년도에 0.5% ~0.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한국의 대외교역량 중 타이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타이의 경우 총수출 중 대한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0년대에 있어

〈표 27〉 한국과 타이의 상호교역 비중 (단위 :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한국	대타이수출	0.7	0.9	0.8	0.5	0.5	0.6
	대타이수입	0.4	0.4	0.4	0.5	0.9	0.5
	대타이무역	0.5	0.6	0.6	0.5	0.7	0.5
타이	대한수출	1.2	1.4	1.6	1.8	2.7	1.3
	대한수입	1.8	2.4	2.8	2.0	2.4	2.4
	대한무역	1.5	2.0	2.3	1.9	2.5	1.9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전개서.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8. 3.

서 1.2~1.8% 수준이며, 총수입중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절하는 비중도 1.8~2.8%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총교역중 한국과의 교적이 차지하는 비중도 1.5~2.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이 볼 때 한국의 대타이의존정도 보다는 타이의 대한국의존정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으나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 양국의 상호 교역의존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특이할 점으로 이같은 낮은 수준의 상호교역의존도가 80년대를 통하여 별로變化가 없었다는 것이다.

타이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 미국 등 先進國과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등 주변각국 특히 개도국 중에서는 아세안역내국가에 치중되고 있으며, 한국측에서 볼 때도 그간 미국, 일본에 수출이나 수입선이 치중되어 있고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던 결과 이같은 양국 간의 부진한 교역관계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역규모면에서 보면, 한국의 대타이수출의 경우 70년대이 5천만불 미만에서 80년대에는 2억불대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1988년에는 5억불대로 크게 신장하였다. 그리고 타이로부터의 수입규모도 80년대에는 2억불대에 달하고 있어 양국의 市場이 결코 무시할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다(표 28).

〈품목별무역〉 한국과 타이 양국간의 貿易構造를 品目構成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면 대체로 한국은 타이에 섬유·직물, 전자·전기기기 등 경공업제

〈표 28〉 한국의 대타이 수출입추이 (단위 : 백만불)

	수 출	수 입	무 역 수 치
1971	5.0	2.9	2.1
1975	20.5	44.8	-24.3
1980	164.6	91.1	73.5
1981	125.7	174.4	-48.7
1982	148.3	108.7	39.6
1983	218.0	95.6	122.4
1984	235.7	132.7	103.0
1985	143.2	152.1	-8.9
1986	191.8	276.7	-84.9
1987	272.3	191.0	81.3
1988	537.3	264.4	272.9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88. 3.

품과 철강, 비료 및 원동기 등 중공업제품을 輸出하고 있는 반면 원당, 생고무·야채 등 농산물을 타이로부터 輸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대타이 輸出構造를 보면 1987년에는 철강제품이 18.6% 섬유·직물이 16.9%, 비료가 10.1%를 차지하며 주요 輸出品目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자기기, 전기기기 등도 7.8%, 6.9%를 차지하고 있고 원동기, 산업용기기가 4%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표 29).

철강제품과 섬유·직물은 構成比 면에서 꾸준한 신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료는 1985년 이후 輸出比重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들어 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으로는 원동기, 산업용기기, 전기기기로서 1985년에 비해 1987년도의 輸出規模가 원동기의 경우는 7.6배, 산업용기기의 경우는 6.2배, 그리고 전기기기는 4.7배로 각각 늘어났다. 그외에 전자기기도 1987년도에는 198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이 타이로부터 輸入한 商品을 보면 원당, 생고무, 야채·과일, 옥수수 등의 농산물과 광석, 주석 등 광산물 그리고 섬유직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87년 輸入의 品目別 構成을 보면 원당 등 농산물이 60%, 전기기기, 섬유 등 경공업제품이 20% 광물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과 경공업제품 위주의 輸入構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29).

그런데 1985년 이후 크게 증가된 타이로부터의 輸入品目은 전기기기 및 사무용기기인 점이 매우 특이하다. 즉 1987년도 전기기기 수입 규모는 1985

〈표 29〉 한국의 대타이 수출상품 구조 (단위 : 1,000불, %)

	1984	1985	1986	1987	구성비
철 강 제 품	33,730	20,096	30,942	50,512	18.6
섬 유 직 물	25,478	17,919	26,489	45,931	16.9
비 료	50,965	47,347	49,480	27,576	10.1
전 자 기 기	13,180	7,681	9,984	21,153	7.8
전 기 기 기	3,907	3,941	11,646	18,728	6.9
원 동 기	2,745	1,466	8,295	11,116	4.1
산 업 용 기 기	2,538	1,649	2,037	10,222	3.8
어 류	1,048	2,363	5,685	10,099	3.7
인 조 수 지	2,283	3,778	3,834	7,558	2.8
기 타	99,413	36,578	42,950	8,838	25.3
계	235,287	142,818	191,342	271,733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타이랜드」, 1988.

년의 5.3배에 이르고 사무용기기 수입도 4.8배에 이르고 있음을 (표 29)는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타이로부터 工業用原材料인 생고무, 광석, 그리고 농산물인 설탕, 야채, 과실 등을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외에 최근 한국내에서 產業構造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타이에서는 경공업화가 진전됨으로 인해 단순가공이나 조립산업제품인 電氣, 電子機器를 타이로부터 점차 수입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타이의立場에서 보아 타이의 주요수출상품인 고무, 옥수수, 타파오카, 원당, 집적회로의 수출 중 한국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고무원당 등 농산물 제품에 있어서 한국시장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집적회로와 같은 단순가공제품의 경우에는 한국시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표 31). 이는 앞에서 한국의 대타이수입상품구조분석에서 나타난 양국의 產業構造變

〈표 30〉 한국의 대타이수입상품 구조 (단위 : 1,000불, %)

	1984	1985	1986	1987	구성비
원    당	45,996	21,216	66,917	67,602	35.4
생    고    무	10,536	17,049	14,803	20,963	11.0
전    기    기	5,074	3,854	6,625	20,289	10.6
야    채    ·    과    실	25,697	21,749	26,746	13,172	6.9
옥    수    수	18,227	39,257	110,851	9,248	4.8
사    무    용    기    기	2	1,392	5,845	6,698	3.5
미    가    공    광    석	3,207	3,805	4,319	5,967	3.1
섬    유    직    물	5,439	4,083	5,088	5,500	2.9
주    석	3,246	4,288	3,597	2,213	1.2
기    타	15,110	35,319	31,733	39,203	20.5
계	132,534	152,012	276,524	190,855	100.0

자료 : 산업연구원, 전계서.

〈표 31〉 타이의 주요수출품목중 대한국수출비중 (단위 : %)

	1982	1985	1986	1987
고    무	3.0	3.4	4.0	2.9
옥    수    수	0.7	14.2	25.9	2.9
타    파    오    카	0.7	3.2	2.8	1.4
원    당	4.4	11.5	21.9	15.1
집    적    회    로	0.6	0.8	0.7	2.4

자료 : The Bank of Thailand, *Quarterly Bulletin*. 1987.

화의 차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투자〉 한국의 对타이 直接投資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동남아의 타국가, 즉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국가에 비해 对타이 直接投資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1988년 3월말 현재 대아세안 5개국에 대한 直接投資殘額은 2억 2천 4백만달러인데 이중 대타이직접투자잔액은 3백만달러로 대아세안총직접투자중 1.5%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기간의 한

〈표 32〉 한국의 대타이 직접투자현황 (단위 : 1,000불)

투자자	투자허가일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금액	비고
고 흥 명	74. 11. 19	단년필제조	99.76	1,048	
고 흥 명	83. 5. 31	디스포라이타제조	40	435	
금 성 계 전	79. 11. 15	적산전력제제조	20	388	
금 성 사	88. 5. 14	무역업(전자제품)	49	49	
금 성 사	88. 5. 14	전기, 전자제품제조	49	439	
금 성 통 신	88. 4. 13	전화기제조	60	585	
나 진 금 형 사	86. 12. 3	신발금형제조	40	45	청 산계회
동성화학공업	87. 11. 4	접착제제조	51	317	
삼 미 기 업	87. 9. 24	스피커제조	100	180	
유 원 건 설	88. 4. 15	건설업	49	—	미 투자
태 성 무 역	88. 4. 2	봉제완구제조	100	162	
태 평 양 화 학	88. 5. 4	무역업(화장품)	49	—	미 투자
현 광 상 사	88. 5. 14	봉제완구제조	100	50	
화 승	88. 1. 29	신발제조	100	1,924	
풍 영					
소계 14건				5,6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아시안교역 확대 방안」, 1988.

〈표 33〉 한국과 타이의 산업구조대비 (단위 : 구성비, %)

타 이 <sup>1)</sup>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제조업	
타 이 <sup>1)</sup>	1972	30.3	18.6	16.9	51.1
	1978	27.1	22.9	21.3	50.0
	1986	16.7	22.7	20.6	60.6
한 국 <sup>2)</sup>	1972	26.9	19.8	18.0	53.2
	1978	17.9	30.2	28.5	51.9
	1986	13.7	34.7	33.3	51.6

주 : 1) 대 GDP 비중 2) 대 GNP 비중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국의 총대외직접투자잔액 10억 1천 7백만달러의 0.3%에 불과하다.

그리나 1988년도에 대타이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 1988년 6월 말 현재 14개업체가 投資를 하고 있으며 投資金額도 5백6십만불에 이르고 있다(표 32).

直接投資業體의 業種을 보면 대부분이 조립산업으로 전화기제조, 전기·전자제품제조, 스피커제조, 봉제완구제조, 신발제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내의 경공업부문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타이랜드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 2. 경제협력증진 가능성

經濟協力은 근본적으로 상호수혜의 원칙하에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마찰없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양국간의 經濟力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역이나 投資는兩者가 공히 이익을 보는 상황하에서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경제의 성격이 다르고, 잠재력에 있어서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호 교역에서 오는 이득이 더욱 증대될 것이다. 나아가 양국에 특화할 수 있는 부문이 존재한다면 상호 경제교류에 의한 이익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과 타이 간의 經濟構造, 商品輸出入構造를 간단히 살펴본바 양국이 어떠한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면 經濟協力方案이 자연히 도출될 것이다.

韓國과 타이의 產業構造化 추이를 살펴보자. 1970년 초기에 타이는 GDP의 30%가 농림어업부문이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이 51% 그리고 광공업부문이 19%(제조업이 17%)로 농림어업중심의 產業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은 20% 미만에 불과하였다. 韓國의 경우도 농림어업이 2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부문이 53%, 광공업부문이 20%(제조업 18%)로 제조업중심의 產業構造라고 불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經濟構造를 가져 양국의 공업화정도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후 한국은 연평균 9% 이상의 高度成長을 製造業部門 위주로 추진하여 70년 하반기에는 제조업 비중이 30%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1986년에는 제조업 비중이 35%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어업의 1차부문이 15% 미만으로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타이도 연평균 7% 이상의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을 시현하여 1978년에는 광공업비중이 23%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농

림어업의 1차부문이 27%로 하락하였다. 1986년에는 광공업의 2차부문의 비중은 23% 수준으로 1978년에 비해 변함이 없으나 농림어업부문이 17%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부문이 61%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의 타이의 產業構造는 서비스부문이 비대해지고 공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은 製造業部門의 꾸준한 신장으로 고도산업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타이는 제조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정체 내지는 초기의 공업화를 막 지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업화단계를比較할 때 한국이 앞서가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인 工業構造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 타이는 국내의 풍부하고 저렴한 勞動을 활용하는 노동집약적인 부문을 위주로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면에서 한국에서의 비교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노동집약산업부문이 타이로의 이전이 가능하며 상호이익을 가져오는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과 타이의 주요 輸出入商品을 비교해 보자. 타이의 주요수출품은 쌀, 옥수수, 타피오카, 고무, 원당, 주석 등 농산물과 공업용원재료 등 1차산품과 2차산품으로는 IC 회로와 같은 단순조립가공제품과 섭유류이다. 반면 한국의 주요수출상품은 자동차, 철강, 전자, 전기기기, 석유화학제품 등 중공업제품 등이다. 따라서 타이와 한국의 輸出商品構造는 각기 다른 종류의 상품으로相互補完的인 양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타이는 열대지방에 위치하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라는 점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자연적인 조건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같은 상호보완적인 상품교역구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같은相互補完的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입각하여 상호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양국간의 교역비중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3. 한국의 대타이 통상확대방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타이는 생고무, 원당, 주석 등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높고 조립가공제품인 섭유나 전자부품의 수출이 눈에 띄게 많다. 수입면에서는 철강제품, 비료, 기계류, 전자제품 등 중공업 및 자본·기술집약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타이의 공업화단계가 아직 초기에 머무르고 있고 所得水準이 낮아 國內市場이 협소한 데도 기인한다고 보겠다.

또한 타이의 소득분배는 불평등이 심하여 소비에 있어서 이중구조가 뚜렷이 나타나며 지역간 생활수준차도 매우 심하여 지역간의 이중구조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수도인 방콕은 선진국의 대도시를 방불케 하며 방콕 시내의 고급백화점이나 수퍼마켓은 세계상품의 전시장 같은 인상을 갖게 할 정도로 고급상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다.

따라서 타이인들 간에도 이같은 소득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잠재적인 저항감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타이 민족(Siam족)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타이는 ASEAN을 형성하고 주변국가와 유대를 강화하면서 동남아지역에서 政治的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웃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와는 역사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 이웃 민족에 대하여 타이민족이 갖는 우월감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한국이 타이와의 통상협상이나 교류증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타이내의 産業構造, 소득격차, 지역간불균등 발전, 그리고 타이민족의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하여 이에 맞는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산업구조면에서 볼 때 타이는 최근 수출 및 산업구조면에서 제조업 비중이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동부문에 대한 투자장려도 국내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집약산업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최근 노동비의 상승과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 대해 타이에 대한 이전이나 투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면 타이의 입장에서도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집약산업중에서도 타이의 국내자원, 과일, 야채, 주석 등을 가공하는 산업에 대한 한국의 진출 또한 타이로부터 공업화라는 측면 뿐 아니라 국내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환영할 것으로 여겨지며 한국의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부족한 1차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해서 수입·소비할 수 있어 좋은 것이다.

다음으로 타이내의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대타이진출은 타이내 저소득층, 빈민층의 소득을 향상시키거나 고용을 增大시킬 수 있는 産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단순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전자조립산업이나 섬유산업 등이 유망하다고 보겠다. 특히 의류, 양말, 신발 등은 타이내에 풍부한 실크, 황마, 고무 등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1

차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타이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리한 업종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타이내의 산업분포가 빙록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산업이 매우 낙후된 지역간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도 지방의 풍부한 資源을 이용하는 산업이 그 지역에 직접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 수출하는 공장을 지역에 설립하는 것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이인의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하여서 일본기업과 경쟁상황에 있는 부문에 과감히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본과 경쟁이 되는 중화학부문이나 기술집약부문에서 타이와 동반자의 입장에서 공동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화학부문의 進出은 타이의 產業을 경공업 중심에서 산업의 고도화를 기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심한 경쟁상태에 있는 대만과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타이와의 통상증대방안수립시 반드시 감안해야 할 점은 항상 동등한 입장, 동반자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한국의 위급한 상황에 타이가 적극 대처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